

## 현대소설에 나타난 통신매체 인식 연구

- <고향> · <전화(電話)>에 나타난 전화매체를 중심으로 -

오 연 옥\*

차 례

- |                         |                         |
|-------------------------|-------------------------|
| I. 들어가기                 | IV. 당침식 근대화 정책과 정치적 무의식 |
| II. 매체이론의 접근을 통한 문학 연구  | V. 결론                   |
| III. 규율 혼련용 미디어의 즉각적 호출 |                         |

국문초록

매체는 사회적 의미를 갖는 내용이자, 새로운 사회 질서와 의사소통체계를 의미하는 메시지이다. 따라서 매체의 변화란 곧 우리 인식체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조선은 근대적 기계매체의 도입으로 매체 변화에 직면한다. 이는 곧 인식체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전화매체는 당대 사회상이나 사람들의 욕구 변화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발달해 왔다.

근대 이후 개항과 함께 새로운 문물이 조선에 유입됨으로써, 서사는 매체라는 새로운 소재를 통해 당대를 반영하는 역할을 하였다. 전화매체는 모티프 차원에서 문학작품에 수용되거나, 서사담론의 차원에서 그 특성이 수용되어 왔다.

\* 인제대 한국문화와 문화전략연구소 연구원

본고는 염상섭의 <전화(電話)>·이기영의 <고향>을 중심으로 문학 작품에 드러난 전화매체의 인지·소통 양상에 주목함으로써 문학이 전화매체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매체의 유입에 따른 사회변동을 문학작품이 어떻게 반영하는가를 살피는 작업은 곧 매체가 한 사회의 인식체계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이다.

<고향>에서 전화가 가진 ‘호출’의 기능은 ‘규율 훈련용 미디어’라는 정치적 의도로 활용되었다. 전화가 개인의 정치적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호출’의 도구로 수용된 것과 달리, <전화>는 ‘호출’의 기능을 거부함과 함께 전신 매체에 함축된 제국주의의 ‘무작위식의 근대화 정책’을 직시한다. 근대 문물에 대한 직시는 곧 전화라는 전신 매체를 거부함으로써 일제 식민정책에 대한 무의식적 저항으로 이어진다.

주제어 : 매체(학), 미디어, 근대, 전신, 전화, 우편, 수용, 저항, 일제, 식민지, 맥루한.

## I. 들어가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매체(Media)이다. 인류가 존재한 이래, 매체는 항상 존재해 왔다. 매체(Media)의 어원을 살펴보면, 라틴어 메디움(medium)은 ‘가운데’를, 메디우스(medius)는 ‘사이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매체는 ‘미정(未定)의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이후 자연철학과 고전물리학의 감각적 인지론을 중심으로, 매체는 중간 영역에 속하되 사라짐 속에 나타나고 나타남 속에 사라지는 이중의 역할을 내면화한 것으로 이해한다.

18세기 후반, 중력과 전기와 같은 비물질적인 환경이 발견되면서 매체

는 에너지와 관련된 용어로 전이된다. 즉, 물질을 움직이는 사이공간(Interspatium)이자, 종교적인 신성함과 신학적이고 주술적인 품격을 담은 탈물질적 개념을 내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매체의 형이상학적 특성으로 발전하여 맥루한의 매체학의 출발점이 된다. 맥루한에게 있어 매체는 우리의 감각적 활동이나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매체학에서는 광범위한 대상 모두를 매체로 정의하지는 않는다.

매체는 없다는 것, 적어도 실체적이고 역사적으로 불변하는 의미에서의 매체는 없다는 것이 매체론의 첫째 원리일지도 모른다. 매체는 연극이나 영극과 같은 재현 형식, 서적 인쇄나 통신 등의 기술, 문자나 그림이나 숫자 등의 상징으로 활성화될 수 있기에 매체의 목록도 다의적이다. 맥루한은 무기·옷·시계·돈·안경·집·환기장치처럼 이질적인 인공물들을 매체<sup>1)</sup>로 정의한다. 매체를 이용하는 인간은 기술적인 매체보다 그 매체가 담아낼 수 있는 메시지에 집중<sup>2)</sup>하므로,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 매체’ 자체가 아닌 그 속에 담겨진 ‘내용’<sup>3)</sup>이다. 따라

1) 신체·목소리·문자들의 고전적인 의사소통수단, 서적 인쇄·목판화·사진·레코드판 같은 기술들, 라디오·영화·텔레비전 같은 대중매체, 그밖에 도구·연장·실험·약제·기기 등이 모두 매체이다.

장 보드리야르는 소비재나 도로처럼 코드에 의해 지배되는 모든 체제가 매체에 해당한다. 폴 비릴리오에게는 마차·자동차·비행기를 위시한 모든 종류의 탈것들이 매체이다. 해럴드 이니스는 물질적인 의사소통 전달체를 매체로 보았다. 반면, 키틀러는 각 세대 컴퓨터의 계전기, 트랜지스터, 하드웨어 시스템 같은 기술적 장치와 그 연산자들에 매체 개념을 한정'시켰다.(디터 메르쉬, 문화학연구회 역, 『매체이론』, 서울:연세대학교출판부, 2009, 20-24, 11-17, 64-142면.)

맥루한에 이르러 매체는 새로운 의미로 정의한다. 가령, 공사판의 소음은 ‘귀’를 통해 전달되는데, 이때 귀는 소음을 전달하는 매개역할을 할 뿐 매체는 아니다. 즉, 아무런 가공 없이 외부 자료를 수용하는 수동적 기관으로서의 ‘귀’는 매체로 볼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매체란 우리의 감각적 활동이나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이다.(박영욱, 『매체, 매체예술, 그리고 철학』, 서울:향연, 2009, 20-21, 115면.)

2) 김성재, 「매체학의 확장: 철학적 성찰」, 『커뮤니케이션 이론』 1호, 2005, 63면.

3) 어빙 팡, 심길중 역,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역사』, 서울:한울아카데미, 1997, 12면.

서 매체의 역할은 의사소통을 위한 단순한 매개로만 작용하는 데에 있지 않다.

조선의 근대화는 기계 테크놀로지의 유입을 배경으로 진행된다. 개항과 함께 유입된 근대 문물 중에서 매체로서 기능하는 ‘우편, 전화, 도로, 철도, 사진, 축음기, 활동사진, 그리고 문자’는 근대적인 기계매체<sup>4)</sup>에 속한다. 개화기에 도입된 근대문명 중 매체로서 기능하는 근대적 전신제도에 관한 논의는 ‘도로, 철도, 우편 시스템, 사진, 축음기, 전기와 국가의 관계’<sup>5)</sup>를 논하는 매체학적 연구로 팽창시킬 수 있다.

“매체는 메시지다.” 즉, 매체는 사회적 의미를 갖는 내용이자, 새로운 사회 질서와 의사소통체계를 의미하는 메시지이다. 이렇게 매체를 사회와 연결하는 매개로 볼 때, 인식의 매개로서 매체가 인식 대상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임과 동시에 인간들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맺어주는 매개이기도 하다. 따라서 매체의 변화란 곧 우리 인식체계의 변화를 의미<sup>6)</sup>

4) 마샬 맥루한, 김성기 역, 『미디어의 이해』,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24-26, 122-125, 238면.

맥루언은 매체를 ‘문자, 책, 신문, 잡지, 영화, 전화, 음반,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기계적인 매체와 전기적인 매체로 분류한다. 즉, ‘우편, 도로, 철도, 사진, 축음기, 라디오, 활동사진, 전화, 그리고 문자를 중심으로 한 인쇄매체’는 근대적인 기계매체로, ‘텔레비전·인터넷·컴퓨터’는 전기매체로 분류한다. 그는 ‘기계매체’를 ‘외파 explosion’로 묘사한다. 외파는 외부 힘이 선형적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함축한다. 반면 ‘전기매체’는 ‘내파 implosion’로 묘사한다. 이는 동시적이고, 분산적이며 비밀스러움을 함축한다. 그러나 맥루한은 자신의 분류가 선을 긋는 것처럼 완벽하고 또 완성된 작업이라는 점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는다.

‘뉴미디어’라는 용어는 맥루언을 비롯한 매체학자들이 인터넷 및 컴퓨터 통신 중심의 전기 매체를 논하는 데에 사용한다. 이 글에서 논의할 대상인 ‘전화’는 기계 매체에 포함되며, ‘뉴미디어’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 ‘매체’는 기계매체를 의미한다.

5) 이재룡, 「매체를 통해 사상은 존재한다」, 『越境(월경)하는 지식의 모험자들』, 한길사, 2003, 409면에서 <레지스 드브레, 『매체학이란 무엇인가?』>을 재인용.

6) 마샬 맥루한, 위의 책, 24-26, 238면.

맥루한은 전화매체를 통해 이점을 언급한 바 있다. 전화는 막을 수 없는 침입자처럼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걸려온다. 일반 회사의 경우, 전화를 피할 수 있는

한다. 조선은 근대적 기계매체의 도입으로 매체 변화에 직면한다. 이는 곧 인식체계의 변화를 의미하며, 특히 전화매체는 당대 사회상이나 사람들의 욕구의 변화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발달해 왔다.

전화매체는 모티프 차원에서 문학작품에 수용되거나, 서사담론의 차원에서 그 특성이 수용<sup>7)</sup>되어 왔다. 이때 주목해야 할 점은 서사가 매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체를 수용함으로써 발전한다는 점이다. 특히 근대 이후 개항과 함께 새로운 문물이 조선에 유입됨으로써, 서사는 매체라는 새로운 소재를 통해 당대를 반영하는 역할을 하였다.

본고는 이기영의 <고향>·염상섭의 <전화(電話)><sup>8)</sup>를 중심으로 전화매체가 문학작품에 형상화 된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문학작품에 드러난 전화매체의 인지·소통 양상에 주목한다. 이로써 문학이 당대 사회를 반영하는 수단으로서 전화매체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매체의 유입에 따른 사회변동을 문학작품이 어떻게 반영하는가를 살피는 작업은 곧 매체가 한 사회의 인식체계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의이기도 하다. 이는 또한 멀티미디어 시대인 현재 사회에 관한 논의와 무관치 않다 하겠다.

## II. 매체이론의 접근을 통한 문학 연구

오늘날 매체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

시간은 식사 시간처럼 자리를 비운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전화는 사람들의 의사소통체계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다. 이는 곧 의사체계구조가 일방전달식으로 변화함을 의미하기에 본고는 전화를 근대적 기계매체로 분류한다.

7) 김정남, 「소설과 미디어 환경에 관한 연구:비문자 매체(nontext-media)의 소설적 형상화와 기법적 수용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제32호, 2006, 355-356면.

8) 염상섭, 「전화」, 『동서한국문학전집』, 서울:동서문화사, 1988.

이기영, 「고향」, 『北韓文學全集』, 서울:서움미디어, 2005.

본문 인용 시, 제목과 함께 쪽수만 적기로 한다.

근대 개화기에 유입된 매체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근대적 기계매체에서 전기매체로의 발달이 인간과 문학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 ‘근대 소설 형성과 신문매체, 소설과 매체와의 혼종성, 매체이론과의 접근을 통한 문학 연구, 대중매체와 국문학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그 논의는 풍부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논의의 핵심은 ‘매체 전이’와 ‘컴퓨터 통신문학’에 치중<sup>9)</sup>함으로써, 매체학과 문학연구에 있어 본격적인 접근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전화매체는 작품에 자주 소재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과와의 접근성에 관한 시도<sup>10)</sup>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염상섭의 <전화>에 대한 장수익의 논의는 전화의 목적전도 현상에 집중함으로써 매체학과 전화매체의 접근을 배제한 채 논의되었다. 이와 달리, 이승원은 전화 매매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전화의 가치를 통신 연락이 아닌 교환으로 인식한 점에 집중함으로써 전화의 매체성에 비중을 두긴 하였으나, 작가가 이기심의 문제를 근대 자본주의의 제도적 기반인 돈의 문제로 전환하는

9) 조영복, 「1930년대 문학의 테크놀러지 매체의 수용과 매체 혼종」, 『어문연구』 제142호, 2009, 243면.

최성민, 「근대 서사 텍스트의 매체와 대중성의 문제」,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3호, 2006, 69-86면.

장영우, 「대중매체 문화와 국문학」, 『국어국문학』 제129호, 2001, 40, 46면.

임형택, 「근대계몽기 단형서사의 미디어성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대학원, 2007, 21-25면.

맥루한의 ‘만물은 물론 만사까지도 미디어로 보는 시각과 방법을 통해 전환의 본질을 예리하게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환의 시각이 미시적인 지점까지 파고드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맥루한의 해석과 통찰을 거치면 어떤 대상에 대한 일반적 인식 및 분석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 산출될 수 있다는 점에 집중하였다.

10) 김만수, 「미디어의 보급에 대한 문학의 대응 : 신문에서 인터넷까지」,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2집, 2010, 541-568면.

신문과 저널리즘이 보편화되고, 우편제도, 전보, 전화, 인터넷을 사용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체에 대한 충분한 자기 성찰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문학작품과 영화가 제공하는 매체를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사회와 인간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매체와 우리 삶에 대한 좋은 성찰의 기회를 얻고자 한 바 있다.

것<sup>11)</sup>으로 결론짓는다. 그의 연구는 전화가 갖는 기능이 새로운 의사소통의 확장에 대한 기여가 아니라, 자본주의 물신숭배가 낳은 병폐이자 매음을 알선하는 매파의 도구로 전략<sup>12)</sup>하였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전화 기능의 전도(顛倒)현상’을 지적한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그러나 ‘전화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주인공’에게 함의된 ‘정치적 무의식’을 읽어내지 못한 점은 이 연구의 한계라 하겠다.

매체학의 개념은 국내의 매체 연구핵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언론학에서 출발한 그들 연구핵심은 수용자의 매체수용<sup>13)</sup>에 집중한다. 매체수용자는 매체에 담긴 인간의 창조물을 자신의 취향과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직감적으로 이해하는 현상<sup>14)</sup>을 보인 바 있다. 매체수용자의 이러한 양상은 매체를 단순한 정보전달의 수단을 넘어서 인간의 인식패턴과 의식소통의 구조, 나아가 사회구조 전반의 성격을 결정짓는 것으로 보는 맥루한의 주장과 같은 궤에 놓여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맥루한은 ‘매체의 효과’를 메시지의 구성이나 제시 방식이 아닌, 매체 자체에서 찾아

11) 장수익, 「이기심과 교환 관계 그리고 이념」, 『한국언어문학』 64호, 2008, 311-312면.

12) 이승원, 「소리의 메타포와 근대의 일상성」, 『한국근대문학연구』 통권 제9호, 2004, 221-222면.

13) 매스미디어 효과와 관련된 주요 이론 중 ‘이용과 충족이론’은 수용자의 매스미디어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수용자는 능동적이고 목표 지향적이다. 둘째, 매스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일어나는 욕구충족의 동기들과 미디어 선택은 수용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끝으로 수용자는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미디어 이외에도 여러 충족수단을 이용하고 있다.

‘이용과 충족이론’에 대해 바우어는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욕구가 미디어 행위를 동기화하고, 미디어로부터 충족에 대한 기대를 이끄는 것’으로 본다.

(권혁남, 「매스미디어의 기능과 효과」, 강준만 외, 『대중매체와 사회』, 서울:세계사, 1998, 30-31면.)

14) 김성재 외, 『매체미학』, 파주:나남출판, 1998, 6면.

언론학계는 매체학을 언론학의 한 분야로 보고, 새로운 매체의 기술적·사회적 영향을 추적하고 예측하였다.

야 한다고 보았으며, 매체의 효과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매체가 야기하는 전체적인 생활세계(life-world)에 주목하는 것<sup>15)</sup>으로 본다.

### Ⅲ. 규율 훈련용 미디어의 즉각적 호출

조선은 강화도 조약에 따라 개항을 하면서 서양의 근대문물을 받아들인다. 특히, 근대적 기계매체가 도입됨으로써 조선 최초의 근대우편제도가 설립되고, 전선이 조선의 구석구석으로 뻗어가며 뒤흔친 근대의 길을 쫓아간다. 그러나 근대적 기계매체의 도입은 근대화를 앞당긴 데에 반해, 조선을 더 빠르게 근대적 식민지로 몰아가<sup>16)</sup>는 역할을 하였다. 청과 일본이 각각 조선의 통신망을 장악하기 위해 농민을 착취하고 나무를 남벌<sup>17)</sup>함으로써 민심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리하여 전선에 대한 백성들

15) 이는 마셜 맥루한이 생태학이라는 메타포에 집중한 것으로, ‘매체생태학’이라는 학문으로 연구되고 있다. ‘매체생태학’이란 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는 어떤 본질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에 주목한 이론이다. 특히 매체생태학은 기본적으로 매체환경을 인간 유기체의 확장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이 일반적으로 매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환경을 적당하게 변경시킬 수도 있다고 가정한다. (오창호, 「맥루한과 포스트만 : 생태주의 매체철학」, 『한국언론학보』 제52권, 2008, 199-225면.)

16) 김인숙, 「무너져가는 나라가 기댈 것은 미래뿐…… 고종, 학교설립 흔쾌히 허락: 광혜원 · 배재학당 설립…… 민간의 근대화 움직임」, 조선일보, 2004년 4월 9일, A26면.

조선 최초의 근대우편제도가 설립되고, 병기제조장인 기기창이 세워지고, 전선이 조선의 구석구석으로 뻗어가며 뒤흔친 근대의 길을 빠르게 쫓아간다. 하지만 국제우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세계화를 앞당길 수도 있었던 해저전선과, 서로 북로 전선은 일본과 청나라의 보다 본격적인 침탈의 도구가 되었다. 문명은 근대화를 앞당겼지만, 무너져가는 나라 조선을 더 빠르게 근대적 식민지로 몰아가기도 했다. 난세란 그런 것이었다.

17) 강준만, 『전화의 역사: 전화로 읽는 한국 문화사』, 인물과사상사, 2009, 41면.  
텐진조약으로 인해 조선에 군사를 두지 못하게 되자, 청은 ‘서로전선(西路電線)’

의 부정적 인식은 전신시설 파괴에까지 이른다. 전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그에 따른 파괴 행위는 후일 의병활동에까지 이어지며, 훗날 통신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의병투쟁의 주요 목표가 된다.<sup>18)</sup> 당시 통신시설은 한국의 국권을 위협하는 외세침탈의 상징이자 실질적인 도구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전기’가 도입됨으로써 실효성을 갖게 된 매체인 전화 역시, 일제의 식민통치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에서 전화는 일제의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근대화의 상징’이 되었고, 조선 사회 내의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고자 하는 목적도 갖고 있었다.

고종황제 침소와 정부 각 부처를 연결하는 전화가 설치된 1897년 이후로, 전화의 보급화가 이루어져 1910년에는 무인부스에 동전을 넣어 사용하는 자동전화, 즉 사실상의 공중전화가 공원과 같은 요처에 등장<sup>19)</sup>하였다.

“마침 경부선이 개통한 직후로,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기차와 정거장과 전봇대를 보고 경이의 눈을 크게 떴”(〈고향〉, 95면)던 1887년 4월, 경복궁의 건청궁에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왔다. 수많은 대신들이 모여 천지개벽의 순간들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곧, 향원정 연못의 한가운데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천지를 진동하는 우렛소리 같은 게 울리고, 믿을 수 없게도 깊은 봄밤이 눈부신 대낮으로 밝았다.

---

을 가설함으로써 조선에 신속하게 군사를 파견할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하려 하였다. 이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으며, 이들 양국 사이에 위치한 조선 백성의 고통은 극심하였다.

18) ‘채백, 『통신매체의 도입과 한국 근대의 사회변화』, 박정규 외, 『한국근대사회의 변화와 언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178-179면’을 ‘강준만, 위의 책, 48면’에서 재인용함.

19) 강준만, 위의 책, 65-69면.

이는 전화가 소통의 수단을 넘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동기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전화를 이용한 범죄가 사기사건에서 살인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생하였다.

입을 벌린 채 허공을 바라보는 대신들의 모습 위로 더 이상은 어둠 속에 몸을 감출 수가 없게 된 봄꽃들이 축제의 한순간처럼 꽃잎을 흔드는 장면 묘사는 경복궁에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온 순간을 자칫 낭만적 분위기를 연상케 하나, 최첨단의 전등이 밝혀졌어도 난세는 여전히 그들 속에 있었으며, 그러한 사회의 청년들은 시대를 비껴 걷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시대의 정중앙을 걷는다. 벼랑에 서 있는 나라의 모든 것이 그들의 어깨에 옮겨져 있었으나, 난세의 무게보다 더욱 무거운 것은 그들이 담당해야 할 미래의 무게였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는 지식 청년의 고뇌가 깊은 만큼, 백성들 역시 새로운 문명에 그저 놀랄 뿐 신문물을 사용할 의지를 갖지 못한 채 그저 두려워하고 있었다.<sup>20)</sup>

그러나 조선의 모든 사람들이 신문물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을 가진 것은 아니다. <고향>의 희준은 변화를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진 자로, 안승학은 사회를 움직이는 도구를 가진 자로 형상화 되었다.

희준은 고향에 ‘전등과 전화’가 가설된 것을 보며 반가움을 느낀다.

희준이는 동경에서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오 년 동안에 고향은 놀랄 만큼 변화였다. 정거장 뒤로는 읍내로 연하여서 큰 시가를 이루었다. 전등, 전화가 가설되었다.

C사철(私鐵)은 윈터 앞들을 가로뚫고 나갔다. 전선이 거미줄처럼 서로 얽히고 그 좌우로는 기와집이 즐비하게 늘어섰다.(〈고향〉, 23면)

과거 자신의 집터가 신작로로 들어간 것을 보았을 때, “마치 길을 잃은 나그네와 같이 한동안 우두커니 서서 자기 집의 옛터를 바라다보”(25면)긴 했으나, 희준에게 “그 동안의 변천은 어쩐지 형용하지 못할 그런 쾌감”(27면)을 느끼게 하였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아들 공부를 잘못 시켰”(26면)다며 수군거리는 것에도 관여치 않았다. 근대 학생 청년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와 동족 지주, 동족인 모던 보이와 모던 걸

20) 김인숙, 위의 글, A26면.

을 혐오 혹은 투쟁의 대상으로 삼은 데에 반해, 희준은 자신의 고향에 펼쳐진 근대 문명의 전개에 우선 감탄하기 바쁜 까닭에 그들의 비난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즉, 희준은 변화를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진 '최소한 특정한 사회계층'<sup>21)</sup> 중 한 명이라 할 수 있다.

희준은 당대 지식인으로, 도시 문명보다는 주로 농촌(고향)에 관심을 가지고 농촌의 풍경과 아름다움, 고향의 정서 그리고 농촌봉사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 희준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교육을 제공받은 학생들은 농촌의 정서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적인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문명에 대해 관심을 보이긴 했지만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으며, 도시문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 이는 경성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서구 문명을 수용함으로써 신·구 문화의 절충(折衝)지가 되어, 현대와 과거의 역사,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집합·충돌하고 있는 격전지로 보였기 때문이다. 희준의 고향에도 사람들의 의식이 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차와 전봇대, 우편소와 같은 근대 문물이 수용되었으며, 여기에는 새로운 세계에 대응력을 구비하지 못한 인물들과 친일 혹은 친제국주의로 발 빠르게 움직<sup>22)</sup>인 안승학과 같은 인물이 공존하게 된다.

<고향>에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도입된 우편소에 대한 반응이 잘 드러나 있다.

우편소가 새로 생긴 것을 보고 이웃사람들은 그게 무엇인지 몰라서 집을 잔뜩 집어먹고 있었다. 짐승같이 늘어진 전봇대에는 노상 잉-하

21) 어빙 팽, 앞의 책, 12면.

사회변화와 미디어 발달의 상호관계는 역사의 기록이 시작될 때부터 계속되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발명 그 자체가 사회를 변화시킨 것은 아니다. 사회적 혁명은 거친 토양, 변화를 향한 열린 마음, 최소한 특정한 사회계층을 바탕으로 성장한 것이다.

22) 정경은, 「근대 학생들의 문명인식 고찰」, 『한국학연구』 제35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386면.

는 소리가 들리었다. 그것은 전신줄을 감은 사기 안에다 귀신을 잡아 넣어서 그런 소리가 무시로 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편소 안에는 무슨 이상한 기계를 해 얹히고 거기서는 무시로 괴상한 소리가 들리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은 그것도 무슨 귀신을 잡아 넣어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라고 하였다.<고향>, 95면)

안승학은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이 메시지의 운송을 대신함에 따라 정보전달을 위해 사람들이 직접 이동할 필요성이 줄어들음을 알고 있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언어가 생겨날 때마다, 그들만이 알고 있는 지식에서 비롯되는 이익을 충분히 자각하고 있는 새로운 전문가 집단이 등장했다. 커뮤니케이션 도구는 각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손에 있었으며<sup>23)</sup>, 안승학은 그러한 인물유형에 해당한다.

그럴 때 안승학은 마술사처럼 이 귀신을 부리는 재주를 그들 앞에서 시험해 보았다.

그는 엽서 한 장을 사서 자기 집 통수와 자기 이름을 쓰고 편지 사연을 써서 우편통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장담하기를 이것이 오늘 해전 안에 우리집으로 들어갈 터이니 가보자는 것이었다. 과연 그날 저녁때였다. 지옥사자 같은 누렁옷을 입은 사람은 안승학의 집에 엽서 한 장을 던지고 갔다. 그것은 아까 써넣던 그 엽서였다.<고향>, 95면)

“누렁옷을 입은 사람”이 “지옥사자”로 비취졌다는 점은 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대문물을 접하게 된 마을사람들로서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심리 반응일 것이다. 그들은 두려운 마음과 함께 안승학이 “목판차를 맨 처음으로 먼저 타고 서울을 가보았”(95면)다는 사실에 감탄한다. 그는 “남 먼저 개화”(96면)한 사람으로, 이태 만에 새로 설립된 사립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군청으로 들어가는 “출세에 대한 첫걸음”(96면)은 개화와

23) 어빙 팽, 앞의 책, 14면.

무관치 않다. 마을 사람들 역시 그를 “이 고을에서 우편으로 보내는 편지를 제일 먼저 써본 이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위대한 선각자”(96면)로 평가한다. 그러나 안승학에게 우편 통신매체는 “귀신을 부리는 재주”를 마을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보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해전 안에” 도착하는 우편매체는 즉각적 호출을 가능하게 할 수 없다. 안승학에게 중요한 통신매체는 전화이다. 근대적 기계매체인 전화는 이 시기에 있어 ‘호출’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안승학이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요구한 것은 전화매체임은 주목할 만한 점이라 하겠다.

그는 우선 면서기를 다니는 자기 동생을 오라 해서 전후사연을 자세히 설파한 후 그것은 오로지 희준이의 사숙이라는 것을 언지시 말하고 앞으로 그들의 행동을 감시하도록 당부하였다. (중략) 그래서 만일 어떤 불온한 공기가 보인다면 그는 즉시로 전황줄을 매고 있는 읍내 시는 동생에게 기별하여서 그들의 계획을 미연에 부수뜨리자는 심산이었다. (<고향>, 502면)

안승학은 “작인들이 직접 지주와 담판하러 비밀히 상경한 것”(501면)에 대한 양값음을 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전화를 이용하여 동생을 ‘호출’한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전화를 통한 동생과의 소통, 즉 “전후사연을 자세히 설파”하는 과정은 전화 통화를 통해서도 수행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화통화가 아닌 동생을 불러내어 ‘직접 대면’함으로써 그간 상황을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승학이 호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로 전화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매체에 해당하는 전화의 사용가능성은 ‘즉각적 호출’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안승학에게서 전화는 순수한 ‘호출’의 기능이 아닌, 출세의 욕망을 실현시키려는 정치성을 내재한 채 그 역할이 수행된다. 편지나 전신과 같은 ‘순수한 시각적 방법은 너무 속도가 느려 적절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못하’<sup>24)</sup>다. 그러나 전

24) 마샬 맥루한·펄빙 피오르, 김진홍 역, 『미디어는 맛사지다』, 서울:커뮤니케이션스

화는 즉각적 호출이 가능하다.

메이지 국가 시대, 경찰 전화 시스템의 신속한 발달은 전화라는 미디어를 국가가 국민의 신체를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규율 훈련용 미디어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1880년대에는 경차로가 감옥, 광산이나 들판의 죄수 작업장을 연결하는 전화선을 여러 개 가설했는데, ‘죄수 호출이라든가 도주한 죄수의 신속한 수배’가 목적<sup>25)</sup>이었다. 즉, 전화가 가진 ‘호출’의 기능은 ‘규율 훈련용 미디어’라는 정치적 의도로 활용되었다. 이는 안승학의 전신매체에 대한 목적의식과 유사하다.

안승학이 ‘전신매체’인 전화를 이용하여 얻고자 한 ‘호출’의 목적은 제국주의가 ‘전신매체’인 조선 통신망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전선을 가설’한 목적과 서로 대응한다. 양자는 근대 문물인 ‘전신매체’를 이용함으로써, 소작인들에 대한 양값음을 하려는 개인의 목적과 조선에 군대를 신속히 보내려는 제국주의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그 당시, 조선인들은 새로운 기술과 문물 도입에 대한 저항이 강했다. 이는 조선인의 보수성이나 배타성이 아닌, ‘우편은 일체의 것’이라는 강

복스, 2001, 63면.

25) 요시미 슌야, 송태욱 역, 『소리의 자본주의: 전화, 라디오, 축음기의 사회사』, 서울:이매진, 2005, 141, 193-197면.

1871년 히로시마 현 산요도선 측량 때의 폭동이나 1873년 후쿠시마 현에서 일어난 전신국이나 전봇대, 전선을 훼손한 폭동, 1876년 미에 현 내 농민의 전신국 습격사건 등이 발생한다. 이 사건들은 근대과학의 신기함에 놀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었다.

일본에서 전화는 오락 미디어의 특성 이전에, 어디까지나 국가가 국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군사·경찰 같은 기술이었다. 초기 공중전화 사업 역시 경찰의 전화망이 체신성에서 공중전화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정비되고 있었다. 메이지 시대에 철도 전화나 관청 전화 또는 광산 전화 시스템도 급속하게 발달해, 이 시대 전화라는 정보기술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단 이상으로 국가적인 산업정책이나 국민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했다.

사람들은 명민하게 철도나 전신 등 새롭게 들어온 테크놀리지의 정치적 함의를 읽어냈고 그런 기술에 매개된 국가의 전략에, 자신들이 집합적 기억 속에서 배양해온 구전의 상상력이나 게릴라전 같은 폭력으로 대항하려고 했다.

한 의식<sup>26)</sup> 때문이었다. 따라서 전신매체는 수용자의 정치적 입장과 무관치 않다. 안승학을 윤리적 차원에서 비열한 인물로 논의하는 것<sup>27)</sup>은 근대문물의 적극적 수용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 문물의 사용 의도에 있다.

과학기술은 어디까지나 중립적이다. 그러나 <고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전화가 중립적인 테크놀러지에 기초한 중성의 문화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sup>28)</sup> 일종의 복합적인 정치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달자가 수신자에게 공급하는 메시지 상품은 사용자의 참여를 배제시키고 획일적인 수용양식을 결정짓는 완벽한 것이다. 따라서 부르주아적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사용하는 언어를 본질적으로 억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신자를 지배를 위한 생산물(subjugating product)의 내부에 가두어둠으로써 구속하는 것이 곧 언어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 작용의 결과는 역설적이게도 자기 자신을 점차 노예화시키게 되며, 전달자의 자유도 역시 억압 받게<sup>29)</sup> 된다. 따라서 안승학은 통신 매체를 비롯한 새로운 근대 문물의 적극적 수용을 통해 자신의 출세를 보장 받으려 하지만, 오히려 조선의 백성을 억압함으로써 일제에 봉사하는 제국주의의 노예로

26) 강준만, 앞의 책, 50면.

27) 김윤식, 「우리 근대 문학 연구의 한 방향성 -근대와 그 초극에 관련하여」,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서울:민음사, 1994, 244-245면.

“남보다 먼저 개화”함으로써 출세의 길을 걷게 된 안승학이 부(富)를 축적해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윤리적인 면과 근대문명의 선봉자인 만큼 근대문명의 즉각적 활용능력에 대한 상관관계의 오해는 부당한 면이 없지 않다. 철도 제도, 우편 제도, 행정 제도, 학교 제도, 군사 제도 등이 전면적으로 수용되는 장면이 벌어졌을 때, 이를 재빨리 알아차리고 이에 민첩히 적응한 안승학을 윤리적 차원에서 비열한 인물이라 평하는 것은 부당하다. 자연의 계량화와 그것의 정밀화를 추구하는 근대적 이념성이란 윤리가 아닌 과학과 결부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승학을 추악한 인물로 형상화한 것은 이기영이 근대적 이념성을 추악한 것으로 인식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8) 요시미 순야, 앞의 책, 207면.

29) 아몬드 마텔라트, 「커뮤니케이션과 이데올로기」, 이상희 편, 『커뮤니케이션과 이데올로기-비판이론적 시각』, 파주:한길사, 1988, 262-263면.

위치하게 된다.

<고향>에서 전화가 개인의 정치적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호출’의 도구로 수용된 것과 달리, <전화>는 ‘호출’의 기능을 거부함과 함께 전신 매체에 함축된 제국주의의 ‘무작위식의 근대화 정책’을 직시한다. 근대 문물에 대한 직시는 곧 전화라는 전신 매체를 거부함으로써 일제 식민 정책에 대한 무의식적 저항으로 이어진다.

#### IV. 당침식 근대화 정책과 정치적 무의식

1920년대 전화가 보급되던 초기, 기계매체의 새로운 출현은 계급을 계층화시키는 데에 기여한다.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처음 생겨났을 때는 극히 제한된 사람들만이 그것을 소유할 수 있었다. 새로운 기술들은 기존의 기술보다 특정한 분야에서 사용상 우월성이 인정될 때 받아들여지지만, 보급의 문제는 사회적 바탕을 필요로 한다. 회사와 개인은 전화가 우편과 전보에 의한 통신보다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선택<sup>30)</sup>하였으나, 전화 가입비는 엄청나게 비쌌기 때문에 이용자 수는 절대적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사실상 전화를 구비할 수 있는 층은 사업가들이나 일부 중상류 계급의 가정에 국한되었다. 지배 계급에게 전화는 계급적 구별 짓기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전화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둘러싼 사회집단들의 세력 갈등 또한 드러났다.<sup>31)</sup> 조선의 경우, 경성 전화가입구역을 중심으로 확산된 전화미디어는 상업 지구·행정 지구 중심으로 배치되었다. 많은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군사지구인 용산의 전화가입자수가 70% 이상을 차지<sup>32)</sup>하는 것을 통해, 지역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매우 편향

30) 어빙 팡, 앞의 책, 17-18면.

31) 이상길, 「전화의 활용과 근대성의 경험 :벤야민의 텍스트 <전화>를 중심으로」, 『언론과사회』 제10권 제2호, 2002, 120면.

32) 윤상길, 「일제시대 京城 전화 네트워크의 공간적 배치」, 『서울학연구』 제34

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인에게 있어서 전화는 ‘추침’에라도 걸려야 가정에 설치할 수 있는 희귀한 것이었다.

그것도 누가 전화를 매구 싶어 댔나! 추침에 빠졌으니까 울며 겨자먹기 한 노릇이지.<전화>, 170면

이주사는 추침에 당침됨으로써 전화를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은 갖추었으나, 전화 설치비 300원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는 전화 설치를 포기하지 않는다. “전화를 매느라고 전당을 잡히고 동서대취를 하고 하여 가설료 삼백 원을 간신히 치”(165면)하면서 까지 집에 전화를 설치한다. ‘아씨’ 역시 자신의 옷가지 등을 전당 잡히면서도 그의 결정에 동조한다. 이들의 무리한 실행은 전화를 통신매체 이상의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즉, 근대 조선인들은 개항이후 도입된 서구 문명과 문물을 초기에는 호기심어린 시선이자, 새로운 호흡<sup>33)</sup>으로 생각했다.

따르릉 소리가 유난히 쟁쟁히 나더니 주인아씨의 겁을 집어먹은 듯한 허청 나오는 목소리가 들리다가, 저편이 누구인지 말씨가 곱지 않아지며 탁 끊는다.<전화>, 162면

아씨는 신문명에 해당하는 ‘전화’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생 채홍이 남편을 찾는 전화를 걸었음에도 “받고 싶던 전화를 받은 것이 난생처음 해보는 전화처럼 신기한지 생긱하는 웃음이 상큼한 콧마루 위로 지나”(163면)치는 자신의 표정을 숨기지 못한다. “한마디 톱 쏘고 나서 어색한 빛을 감추랴, 성을 내어보이라, 단순한 그러나 여러 갈피의 감정이 얼굴에”(162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아씨는 ‘전화를 받아보고 싶다는 설렘’이 곧 남편의 외도를 부추기는

호, 2009, 168면.

33) 정경은, 앞의 글, 34면.

결과로 귀결되는 자기 모순적 상황 속에서, 전화를 근대적 기계매체로서의 특성과는 무관한 덩이쇠로 평가한다. 아씨의 이러한 심리는 ‘이용과 충족이론’<sup>34)</sup>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매스미디어 효과와 관련된 주요 이론들 중 하나로, 개인의 사회적·심리적 욕구가 매체 행위를 동기화하고, 매체로부터 충족에 대한 기대를 이끌어내며, 매스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욕구충족의 동기들과 매체 선택은 능동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수용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아씨가 전화라는 매체를 통해 얻고자 기대한 ‘사회적·심리적 욕구’는 신기함과 설렘의 충족이지만, 남편을 찾는 기생의 전화만을 받음으로써 그 욕구의 충족은 좌절된다. 따라서 그녀는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전화매체 이외에 여러 충족수단을 모색하게 되고, 급기야는 “그 빌어먹을 전화, 내 있다가 떼어버려야지!”(163면)라는 말과 함께 전화사용의 필요성을 전면 부정하기에 이른다.

명령과 주문, 그리고 ‘호출’은 전화와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행위이다. 전화는 은행가나 사업가의 업무용 도구로 자리 잡았으며, 계약을 빨리 처리하거나 사무실에서 공장으로 명령을 쉽게 하달<sup>35)</sup>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렇듯 기술은 눈에 띄게 변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취향과 관심은 변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포도주를 새 병에 붓는 것<sup>36)</sup>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아씨는 전화가 ‘호출’

34) 강준만 외, 『대중매체와 사회』, 서울:세계사, 1998, 30-31면.

매스미디어 효과와 관련된 주요 이론으로 ‘탄환이론·제한효과이론·이용과 충족이론·의제설정효과·계발효과이론·미디어의존이론·침묵의 나선이론·지식격차가설·제3자효과’가 있다. 이들 중, 본고는 ‘이용과 충족이론’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용과 충족이론’은 수용자의 매스미디어 이용과 관계있는 것으로, 매스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일어나는 욕구충족의 동기들과 미디어 선택은 능동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수용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논의이다. 그리고 수용자는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미디어 이외에도 여러 충족수단을 이용한다.

35) 이상길, 앞의 글, 124-125면.

36) 어빙 팽, 앞의 글, 15면.

의 역할이 아닌 외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점에 집착한다. 근대 문명의 상징인 ‘전화’를 집에 설치해 두었다는 자부심은 이내 소리 요란한 “백동(白銅) 빛 쇠종 두 개”(164면)가 전부인 대상으로 인식한다. 이는 “기생년하구 새벽부터 시시덕거리”(163면)게 하려고 전화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며, “전화가 시앗이나 되는듯시피 전화 타령으로 불쾌한 입씨름”(170면)을 하는 아씨의 행동에 여실히 드러난다.

소통을 위한 매체로서의 전화가 아닌, 남편과 기생의 매음에 기여하는 전화는 가장의 편의에 기여하는 도구이자 한 가정 위에 군림하는 존재이다. 아씨가 전화를 걸고자 한다면 상대편 역시 전화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전화 설치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는 아씨는 전화 받기를 고대하는 수동적 커뮤니케이션 수용자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일방적인 소통 방식은 전화를 설치할 권리를 추첨식으로 배정받기를 고대하는 상황과 다를 바 없다. 이때 전화는 식민지국가 위에 군림하는 식민지배자의 모습과 흡사하다. 소통의 매체인 전화는 추첨식으로 당첨되는 정책에 의해 근대문명을 일방적으로 배정받는 방식으로 설치하게 된다. 그러나 근대문물에 대한 설렘은 곧 근대문물에 대한 부정으로 전환된다. 이렇듯 아씨가 전화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곧 일제 통신 매체에 대한 저항의 한 일면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그놈의 전화나 팔아버릴까? ……)

하는 생각을 하다가 코웃음을 쳤다. 매던말에 며칠이 못 가서 떼어내기가 동리에 창피하고 섭섭도 한 일ियो, 또 일 년인가 얼마 기한이 지나야 팔 수 있는 것이다.<전화>, 166면)

이주사도 집에 전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1920년대, 대부분 전화는 사업상 용도로 설치하였다. 전화를 가정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때 전화의 일부 가입자들은 전화를 하층민들과는 공유할 수 없는 지위의 상징으로 간주<sup>37)</sup>하여 부의 상징으로 전화를 설치한 경우에 해당

하였다.

그러나 전화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보다 신속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초기에 전화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열쇠가 전화의 사회적 용도를 명확히 하고 이것을 널리 확산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했다. 전화가 있으면 긴급한 업무 연락을 바로 할 수 있고 고객을 얻는 데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sup>37)</sup> 따라서 회사에 설치한 전화의 주요 기능은 사업용에 해당한다. 그러나 ‘호출’을 위한 사적(私的)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주사는 “×회사 이층에서 하물계 주임”(164면)이다. 그러나 회사에 걸려오는 전화 중 사적인 것이 없지는 않다.

「……글쎄 알았어. …… 응, 응, 아무쪼록 곧 가 뵙죠……」  
반말이 다시 공대로 변하더니,  
「네, 네, 기다려주세요」  
하고 푹 끊는다.<전화>, 164면

전화는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도 상관없이 걸리어 오므로 시각적 프라이버시, 즉 문자문화인이 찬양하는 고도로 개인적인 형태이자, 혼자서만 어떤 것을 보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sup>38)</sup> 따라서 동일한 공간 속(사무실)에 있던 김주임은 채홍에게서 온 전화임을 알아차린다. 이후로 “회사에 들어가 앉아서 채홍이가 전화나 걸어오지 않을까 하고 은근히 기다”(170면)리는 이주사의 모습을 은근히 놀려주는 것이다. 전화가 귀하던 시기였기에, 회사 근무 시간일지라도 개인적 용무의 전화를 기다리는 일이 그리 큰 흠이 되지 않았다.

37) 어빙 팽, 앞의 책, 111면.

일부 전화 가입자들은 일반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동전투입식 공중전화 같은 장치를 만들어 벨시스템이 널리 접근가능하게 되는 것에 반대하였다.

38) 요시미 순야, 앞의 책, 141면.

39) 마샬 맥루한, 앞의 책, 386면.

이렇듯 사업장에 보급된 전화는 회사의 이윤 창출과 호출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집에 설치한 전화로 인해 이주사가 “전화 덕 보았다고 생각하는 것”(167면)은 “빠져나갈 길이 막연하던 판에”(167면) 구실을 마련해 준 것이 전부이다. 아씨도 역시 “참 원수의 전화를 달더니 밥상 받고 있는 이까지 불러내가”(167면)는 데에 “화가 치밀어”(168면) 오른 상태이다.

가진 꾸념의 화풀이가 결국에는 또다시 애꿎은 전화통으로 갔다. 그도 그럴 것이 주인아씨의 옷가지 금붙이를, 때때로 무엇에 놀란 듯이 때르릉 때르릉 하며 어제 온종일 사람의 부아를 돌아놓고 밤중까지 잠도 못 자게 한 저 전화통이란 괴물이 집어삼켰으니 이 아씨가 아니기로 잡자코 있을 리가 없다. (중략) 갈보년의 전화 시중이나 들구. …… 이 집에 전화 교환수루 들어왔읍디까?(〈전화〉, 169면)

서양의 경우, 교환수는 ‘목소리’의 규격화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교환수들의 인격적 요소는 되도록 배제됐고, 교환수들은 일정한 톤의 목소리로 회선을 연결하는 교환 기계의 부품 같은 존재<sup>40)</sup>였다.

40) 요시미 순야, 앞의 책, 161-177면.

벨 전화회사는 남성 교환수를 채용하였으나, ‘본성상’ 교환수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다. 원래는 전신이 본업인 젊은 남성들은 전화교환을 일시적인 일자리로밖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이 요구하는 규율을 순순히 따르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에게 있어 전화 교환수 직업은 다르게 해석되었다. 여성이 지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라면 학교 교사 정도밖에 없던 시대에, 전화 산업은 여성들에게 열려진 그리 많지 않은 첨단 직장 중 하나였다. 따라서 여성들은 전화 교환수를 결코 일시적인 일자리로 생각하지 않았다. 여성들이 이렇듯 뉴미디어 매체와 관련된 직종에 종사한다는 자부심과는 달리, 19세기 후반 부르주아 사회가 교환수로 여성을 선택한 이유는 여성을 순종적이고 수동적이며 인내력이 강한 분별 있는 존재로 보았던 데에 있다. 이유가 어디에 있든, 여성 교환수들은 교환 업무를 통해 지역의 네트워크 지위를 얻었다. 당시 발전하고 있던 초기의 테크놀로지 단계에서는 교환수들이 직접 고장 난 부분을 고치거나 기계 상태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여성 노동자 관리 시스템 역시 발달하지 못한 단계에서, 여성 교환수들은 시스템의 터진 곳을 감싸며 자기의 이익과 산업

조선의 경우도 ‘전화교환양’에 대한 입장은 긍정적이지 않았다. 전화교환양들은 ‘할로 걸’로 불렸다. 1910년 말부터 등장한 할로 걸은 잠깐이라도 실수를 하면 손님의 야비한 욕설과 감독의 꾸지람을 들었다. 이들 40명 중 11명은 보통학교를 졸업한 조선 여성이었다. 그들은 15세에서 18세 사이의 소녀였으며 근무여건은 매우 열악했다.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이야기나 하자는 등 ‘수작’을 거는 남성들로부터 민망한 소리를 던지기도 하였다. 이들의 고달픈 업무는 종종 신문의 화제가 되곤 했다. 일본어에 익숙하지 못한 조선인들에게 일본어를 써야만 했던 전화는 소통을 위한 미디어라기보다는 식민지배자의 모습<sup>41)</sup>을 보였다.

아씨는 “지금 안 계슈”(162면)라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남편을 찾는 기생의 전화를 바꿔주지 않는다. 게다가 또다시 남편을 찾는 여자가 “안계시다 하여도 부득부득 대어달라고 하는 것이 성이 가시기에 한바탕 몰아세우고 딱 끊어버린”(167면)다. 아씨는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상황을 거부하는 데에 한 치의 망설임도 없다.

그런데 남편의 동료 회사인 김주사의 전화를 바꿔줌으로써 남편이 요릿집에 나갈 구실을 제공하게 되자, 전화가 남편의 외도 수단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보다 기생의 전화를 중간에서 가로막아 차단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마치 전화교환수들이 전화를 건 손님을 다른 손님의 전화로 연결하는 모습과 대응된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분노한다.

아씨는 교환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난 갈 테요!”(169면)라는 “최후의 무기인 간다는 소리”(169면)까지 단호히 한다.

이주사는 아씨의 강경한 태도에 전화를 팔기로 결심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창조적 활동은 상품, 즉 시장에서 교환 가능한 재화의 생산이라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상품들의 이와 같은 교환 가능성은 모든 생산물과 모든 활동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특성<sup>42)</sup>을 갖는다.

의 논리를 절충해갈 수 있었다.

41) 윤상길, 『통신의 사회문화사』, 유선영 외, 『한국의 미디어 사회문화사』, 한국언론재단, 2007, 146-147면.

「아, 참, 팔기라도 해버려야 하겠어. 사실 쓸데없는 것을 매달아놓고 통화료를 물어가며 성화를 받을 묘리아 있다.」

「오백 원? 좀 더 내진 못하겠나?」

「그런 게 아니라 집의 아버지께서 점방에 전화를 매시구 싶어 하시기에 말씀을 했더니 오 백 원이면 좋겠다고 하시는구먼.」

「자네 댁에서 쓰신다면 아무려나 하게. 하지만 조금만 더 묵히면, 칠 팔백 원은 넉넉히 받는 것인데…….」 (<전화>, 171면)

위 글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전화시세는 계속 뛰어 3000원에 육박했다. 이에 일제는 1940년 7월 17일부터 전시 하 각종 산업기관의 활발한 활동으로 전화의 투기적 매매가 성행하여 전화의 적정한 분포가 방해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정행위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로 전화 가입자의 임의 명의변경과 임대를 금지시켰다.<sup>43)</sup> 그러나 아씨는 전화를 보유함으로써 발생할 손익 관계에 대한 이해가 끝난 상태이다. 더욱이 일제 식민정책이 금지한 사항을 굳이 지켜낼 생각도 않는다. 오히려 김주사가 가로챈 200원을 그의 아버지에게서 받아내는 데에 성공한다.

앞서 확인했듯이, 소통을 위한 중간자로 위치한 전화교환양은 일본어에 익숙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어를 써야 했으며, 이때 전화는 소통을 위한 미디어라기보다는 조선 소녀들을 억압하는 식민지배자의 모습<sup>44)</sup>에 다를 바 없다. 따라서 교환수 노릇을 그만 두겠다는 아씨의 선언은 일제 통신정책에 대한 무의식적 저항을 의미한다.

혁명과정에 있어서의 임무는 전달자와 수신자 사이의 상호 교환적 (two-way) 커뮤니케이션 유통체제<sup>45)</sup>를 확립함으로써, 한 계급이 다른

42) 아몬드 마텔라트, 앞의 글, 261면.

43) 강준만, 앞의 책, 103면.

44) 윤상길, 「통신의 사회문화사」, 유선영 외, 『한국의 미디어 사회문화사』, 한국언론재단, 2007, 146-147면.

45)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에 근거하여 그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성에 의한 분류로, 송신자로부터 수신자에게 배타적으로

계급을 식민화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이 메커니즘을 탈신화화 하는 것<sup>46)</sup> 이어야 한다. 경성 전화네트워크의 공간적 배치, 즉 전화매체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이 민족적으로 불평등하게 주어진 구조적 조건 속에서 추첨식으로 전화 보급을 유도한 정치적 의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시내 통화의 주된 방식은 시간적·금전적 제약으로 인해 가입자 상호간의 통화일 수밖에 없었으며, 일제 시기 전화미디어가 사실상 일본인들의 전유물이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전화를 설치하고도 “그렇게 기다리던 전화”(162면)를 한 통도 받지 못하고 전화 오기만을 기다린 것은 소설의 허구적 사건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조선인 중 전화 가입자가 아닌 경우 주로 우편국소를 이용하였으며, 우편국소에서 취급한 시외전화 통화에서 상대방이 전화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편국소에서 호출한 회수는 통화 8.4에 대해 1회의 호출을 행한 비율<sup>47)</sup>로 밝혀진 바 있다. 즉 일제는 필요한 곳에 전화를 설치할 의지를 갖지 않은 채, 추첨이라는 우연적 결과를 통해 전화를 보급하려는 무작위식의 근대화 정책을 지지했다. 이에 아씨는 “저까진 나무통하구 쇠방울 두 개”(169면)의 가치가 300원에 미치지 못함을 직시한다. 추첨에 걸리지만 않았다면, 가설비 마련을 위해 “전당 변리”를 소비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전화 보급이라는 명분 아래, 가계 부채를 유도하는 전화 가설비는 경제적 부담과 불화를 초래한다. 아씨가 전화를 없애기를

---

정보가 유통될 경우 일방향(one-way)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고 보는 데에 반해, 참여 당사자들 서로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면 양방향(two-way)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참여자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관여하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양방향의 성격을 띤다.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의 정도에 의해서 분류하는 것으로, 송신자가 수신자로부터 실시간(real-time) 피드백을 받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상황을 언급하는 것이다.

(한근태·반현·홍원식 외, 『현대사회와 미디어』,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9-10면)

46) 아몬드 마텔라트, 앞의 글, 261면.

47) 윤상길, 앞의 글, 159, 161-162면.

주장하는 것은 전화로 인한 이득보다는 감수해야 할 손실이 더 많기 때문이다.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식민화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이 메커니즘을 탈신화화 하는 방법은 새로운 통신 테크놀로지를 거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씨의 전화에 대한 현실적 인식은 전화라는 통신매체를 부정과 동시에 일제 식민정책에 대한 무의식적 저항으로 이어진다.

## V. 결론

식민지 조선의 근대적 경험이란 곧 새로운 매체에 대한 경험이기도 하다. 우리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첨단기술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기술적 힘을 소유하는 자들은 또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다.<sup>48)</sup> 식민 제국주의라는 역사적 특수 상황 속에서 도입된 근대적 기계매체는 우리 문학에 자연스럽게 형상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 커뮤니케이션에 지배당한 주인공 역시 등장한다.

본고는 이러한 소설 중 192·30년대 작품인 염상섭의 <전화(電話)>와 이기영의 <고향>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들 두 근대문학은 ‘우편제도와 전화’라는 새로운 매체의 출현이 일본 제국주의라는 시대적 상황과 결부되어 있는 양상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화(電話)>와 <고향>에 대한 논의는 각각 ‘전화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주인공’에게 함의된 정치적 무의식을 읽어내지 못하였으며, ‘우편 시스템’에 대한 조선인의 대응 양상 속에 함의된 정치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고향>에 나타난 안승학을 통해 ‘전화매체 수용에 따른 목적의식’이 희준을 비롯한 소작인에 대한 양갈음을 위한 데에 있으며, 이는 곧 제국주의의 식민지 정책

48) 아몬드 마텔라트, 앞의 글, 261면.

과 다를 바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근대문물의 ‘수용’을 통한 친일의 행적이 전부는 아니다. <전화>의 ‘아씨’ 역시 전화 가설을 위해 전당변리까지 소비하였으나, 곧 추첨을 통한 전화 가설이 일제의 편리를 위한 ‘무작위식 근대화 정책’에 해당함을 직시한다. 그녀는 전화교환수 노릇을 거절함과 동시에 전화의 존재성을 부정함으로써 일제 통신편익에 대한 저항을 전개한다.

근대적 기계매체의 도입은 단순한 새로운 기술의 출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전화매체에 대한 수용 또는 거부하는 집단의 정치적 무의식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매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매체수용에 따른 정치성은 더욱 다층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근대 전신매체가 도입된 당시의 사회 현상이 문학에 형상화된 양상을 살피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다매체 시대에 각 매체에 함의된 정치성을 탐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 하겠다.

KYOBOTO  
교보문고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염상섭, 「전화」, 『동서한국문학전집』, 서울:동서문화사, 1988.  
이기영, 「고향」, 『北韓文學全集』, 서울:서움미디어, 2005.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서울:문학과 지성사, 2005.

### 2. 국내 논저 및 저서

- 강봉균 편, 『월경하는 지식의 모험자들』, 파주:한길사, 2003.  
강준만, 『전화의 역사: 전화로 읽는 한국 문화사』, 서울:인물과사상사, 2009.  
강준만 외, 『대중매체와 사회』, 서울:세계사, 1998.  
김만수, 「미디어의 보급에 대한 문학의 대응 : 신문에서 인터넷까지」,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2집, 2010, 541-568면.  
김윤식, 「우리 근대 문학 연구의 한 방향성 -근대와 그 초극에 관련하여」,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서울:민음사, 1994, 244-245면.  
김성재 외, 『매체미학』, 파주:나남출판, 1998.  
김성재, 「매체학의 확장: 철학적 성찰」, 『커뮤니케이션이론』 1호, 2005.  
김인숙, 「무너지가는 나라가 기댈 것은 미래뿐…… 고종, 학교설립 흔쾌히 허락: 광혜원·배재학당 설립…… 민간의 근대화 움직임」, 조선일보, 2004년 4월 9일, A26면.  
김정남, 「소설과 미디어 환경에 관한 연구:비문자 매체(nontext-media)의 소설적 형상화와 기법적 수용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제32호, 2006.  
권혁남, 「매스미디어의 기능과 효과」, 강준만 외, 『대중매체와 사회』, 서울:세계사, 1998.

- 박영욱, 『매체, 매체예술, 그리고 철학』, 서울:향연, 2009.
- 이병주, 「활자 이미지화로 본 해체주의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매체미학 관점의 해석」, 홍익대학교대학원, 2007, 159-167면.
- 이상길, 「전화의 활용과 근대성의 경험:벤야민의 텍스트 <전화>를 중심으로」, 『언론과사회』 제10권 제2호, 2002, 111-143면.
- 이승원, 「'소리'의 메타포와 근대의 일상성」, 『한국근대문학연구』 제9호, 2004, 197-228면.
- 이상경, 「식민지 자본주의의 총체적 반영」, 『北韓文學全集』, 서울:서움미디어, 2005.
- 이정욱, 『1930년대 한국 대중소설의 이해』, 국학자료원, 2000.
- 이재룡, 「매체를 통해 사상은 존재한다」, 『越境(월경)하는 지식의 모험자들』, 파주:한길사, 2003.
- 임형택, 「근대계몽기 단형서사의 미디어성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학원, 2007, 1-185면.
- 오창호, 「맥루한과 포스트만 : 생태주의 매체철학」, 『한국언론학보』 제52권, 2008, 199-225면.
- 윤상길, 「일제시대 京城 전화 네트워크의 공간적 배치」, 『서울학연구』 제34호, 2009, 123-174면.
- \_\_\_\_\_, 「통신의 사회문화사」, 유선영 외, 『한국의 미디어 사회문화사』, 한국언론재단, 2007.
- 장수익, 「이기심과 교환 관계 그리고 이념」, 『한국언어문학』 제64호, 2008, 303-331면.
- 장영우, 「대중매체 문화와 국문학」, 『국어국문학』 제129호, 2001, 39-55면.
- 정경은, 「근대 학생들의 문명인식 고찰」, 『한국학연구』 제35집,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0, 361-389면.
- 조영복, 「1930년대 문학의 테크놀러지 매체의 수용과 매체 혼종」, 『어문

연구』 제142호, 2009, 243-268면.

조주연, 『매체 발달과 인문학의 현대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8.

한균태·반현·홍원식 외, 『현대사회와 미디어』,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최성민, 「근대 서사 텍스트의 매체와 대중성의 문제」,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3호, 2006, 65-91면.

### 3. 국외 논저 및 저서

아몬드 마텔라트, 「커뮤니케이션과 이데올로기」, 이상희 편, 『커뮤니케이션과 이데올로기-비판이론적 시각』, 파주:한길사, 1988, 261-263면.

어빙 팡, 심길중 역,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역사』, 서울:한울아카데미, 1997.

디터 페르쉬, 문화학연구회 역, 『매체이론』, 서울:연세대학교출판부, 2009.

레이먼드 윌리엄스, 김성기 역, 『키워드』, 민음사, 2010.

마샬 맥루한, 김성기 역, 『미디어의 이해』,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마샬 맥루한·팽맹 피오르, 김진홍 역, 『미디어는 맛사지다』,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요시미 순야, 송태욱 역, 『소리의 자본주의: 전화, 라디오, 축음기의 사회사』, 서울:이매진, 2005.

윌터 J. 옹, 이기우·이명진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서울:문예출판사, 2003.

<Abstract>

## A Study on Communication Medium Recognition in the Modern Novel

- <Kohyan> · <Cheonhwa> media center as shown in the phone -

Oh, Yeon-Ok\*

Media has social meaning and the message that the new social order and communication system. What is the change in the media means a change in the recognition system. Thus, changes in the media field, we soon recognized means of system changes. With the introduction of modern mechanical media, Chosen Nation faces media changes. It's means a change of the recognition system and, in particular, communication medium.

Contemporary society or with a change in the desire of people have been continuously developed. Communication media acceptable to the literature in terms of motif, or at the level of narrative discourse has been accepted by the characteristics. Since the modern with the opening of two new civilization by being introduced into Korea, narrative through the medium of a new role was to reflect contemporary.

This study focusing on Yeum Sang-soup's <Cheonhwa> · Lee Ki - Young's <Kohyan>. Revealed in literature communication media awareness and communication aspects of attention by the media, how literature reflects the call to make sure.

---

\* Inje University Institute for Korean Culture and Cultural strategy Researcher

Due to the influx of media and social change, how does literature reflect the work's feeling soon in media recognition system of a society in any significant influence is because the discussion.

<Kohyan> on the phone with a 'cal' function of the 'disciplinary training media' has been used as a political intent. Phone for personal political desire to achieve 'cal' of the tool as opposed to the accepted, <Cheonhwa> a 'call' with the function of rejecting implied in the media imperialism 'random modernization policies of the expression' to face.

Modern civilization is about to face the media by refusing to call soon for Japanese colonial policies lead to unconscious resistance.

Key Words : Media, media, modern, telegraph, telephone, mail, acceptance, resistance, Japanese, Colonial, McLuhan, Media Studies.

■ 논문접수 : 2013년 11월 15일

■ 심사완료 : 2013년 12월 9일

■ 게재확정 : 2013년 12월 16일